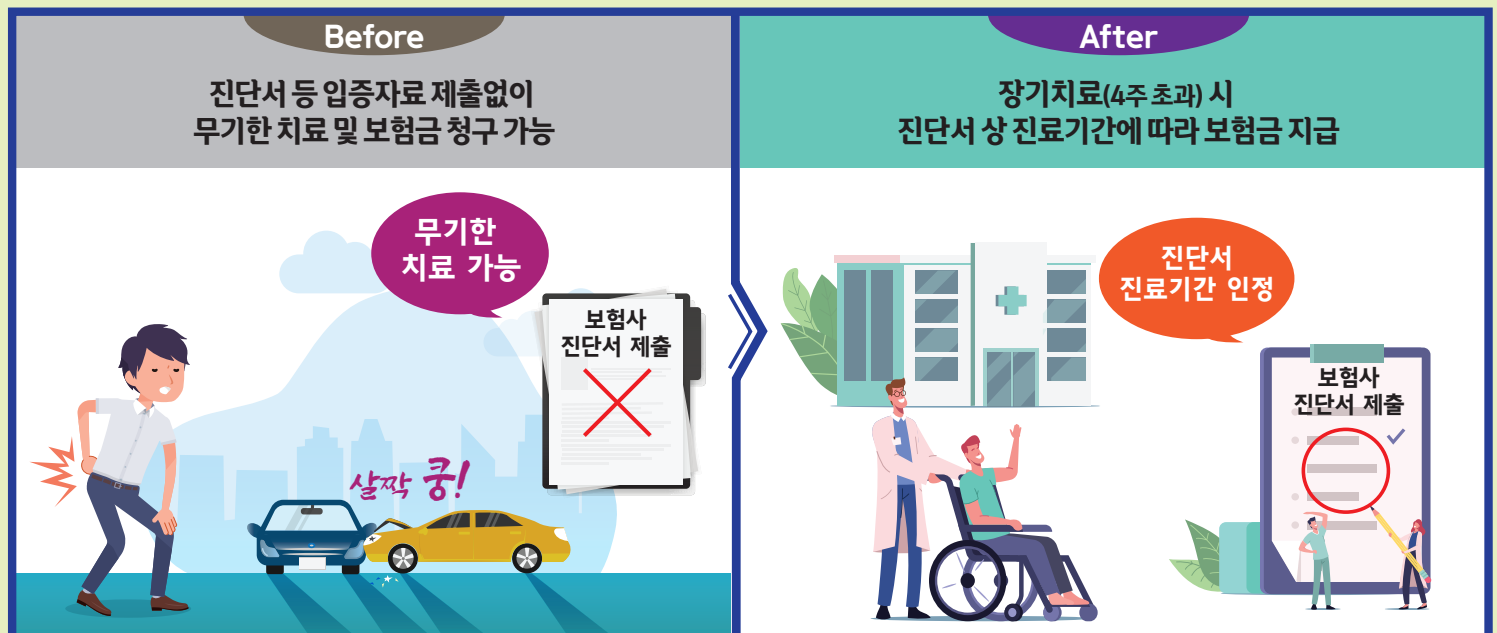


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개선합니다

1. 경상환자(상해등급 12~14급) 치료비(대인2)가 운전자 과실(책임)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됩니다.



2. 경상환자 장기치료(4주 초과)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




3.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부득이 보험분리·가입 시 무사고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인하됩니다.

Before	After
<p>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 증가</p>	<p>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</p>
<p>차량 1대 → 차량 2대</p> <p>남편 명의 → 남편 명의 아내 명의</p> <p>(40세 여성 기준, 보험료 약 126만원)</p> <p>무사고경력 인정 X</p>	<p>차량 1대 → 차량 2대</p> <p>남편 명의 → 남편 명의 아내 명의</p> <p>(40세 여성 기준, 보험료 약 76만원 / 50만원 ↓)</p> <p>무사고경력 최대 3년 인정</p>

4. 사망·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상실수익액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할인 방식으로 개선합니다.

Before	After
<p>보험사(복리방식)와 법원(단리방식) 간 할인 방식을 달리 적용(단리방식 소비자 유리)</p>	<p>보험사의 할인 방식을 법원과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리방식으로 변경</p>
<p>보험사 (복리방식 라이프니츠식) ≈ 법원 (단리방식 호프만식)</p> <p>(11세 여성 사망 기준)</p> <p>약 2.6억원 → 약 4.2억원</p>	<p>보험사 = 법원 (단리방식 호프만식)</p> <p>약 4.2억원</p>

5.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원가지수를 산출·공표합니다.

Before	After
<p>소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 보험금 증가요인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 생성</p>	<p>자동차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·공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</p>
<p>보험료가 왜 오르지?</p>	<p>진료수가, 부품가격, 현실 소득액, 정비공임</p> <p>보험금 원가지수 공표</p>